

지역 소식통



임경문 도예가와 함께한 마음 빛는 전통도예교실'

완주군이 '완주예인 알리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임경문 도예가와 함께한 '마음을 빛는 전통도예교실'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10일 완주군은 지난달부터 총 8회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기수당 6명씩을 모집해 다도체형과 도자기이야기, 발물레를 활용한 나만의 사발 및 찻잔 만들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임 도예가는 소양면 화심리 민덕산 자락에 위치한 전통화심도요'에서 전통방식으로 도자기를 만들고 있다.

임 도예가는 도예교실 수강생들에게 조선시대 도요지(가마터)였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산자락 곳곳에 남아있는 도자기들의 파편들을 직접 보이며 흥미를 이끌었다. 또한, 정성스럽게 준비한 다도체형까지 곁들여 자연과 함께 고즈넉한 편안함을 느끼는 체험이 이뤄져 호응을 얻었다.

/원주=염재복 기자

김제야생동식물피해방지단 토마토즙 120박스 기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야생동식물 피해방지단(단장 양희용)이 10일 관계 저소득 가정을 위해 토마토즙 120박스(약 400만 원 상당)를 기탁하며 따뜻한 연말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야생동식물 피해방지단은 멧돼지, 고라니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포획하며 농업 보호에 앞장서는 한편, 매년 손수 재배한 농작물로 만든 과일즙을 기부해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작년에는 배도라지즙 80박스를 기탁해 관내 취약계층의 건강을 돌보는 데 큰 도움을 준 바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읍면 상징물 담았다

완주 주민 10명, 책가도 완성
군청사 로비에 20일까지 전시
병풍책·리플릿 활용 예정



완주군 주민 10명이 13개 읍면의 상징물을 담은 책가도를 완성해 군청사 로비에 전시하고 있는 가운데, 유희태 완주군수가 책가도를 완성한 주민들에 감사 인사를 표명하고 있다.

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해 책가도에 녹여냈다.

각 읍면의 특성을 담아 13쪽으로 완성된 책가도는 병풍 생강, 비비정 예술염차, 상관 편백숲, 고산 마을 등 각 지역의 특성을 담아내 이를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전시에서는 부연 설명까지 더해져 관람객들의 발길을 머무르게 하고 있다.

작품들은 향후 아이들의 책놀이에 사용할 수 있는 병풍책과 리플릿으로 제작해 활용할 예정이다. 전시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 상징물로 만든 작품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주민들의 훌륭한 작품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주=염재복 기자

김제 사회복지사 전진대회 성료

사회복지 공무원 등에 표창·사회복지사 위한 행사 진행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시 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성순)가 10일 사회복지사들의 노고 격려와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제13회 김제시 사회복지사 전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정성주 김제시장, 서백현 김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박주중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과 민·관 사회복지사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1부 기념식은 김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 13명에게 표창했으며, △김제시장상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오경, 김보은종합사회복지관 김다솜, 김제시청 경로장애인과 박정석, 백산면 행정복지센터 이선아, △국회의원상 친충노인복지센터 박은주, 성암노인복지센터 류귀화, △김제시의회의장상 김제지역자활센터 시소진, 김제노인종합복지관 박세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상 김제노인종합복지관 오현철, △전북사회복지사협회장상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박재정, △김제

시사회복지사협회장상 사회적협동조합 보담 장준, 김제노인종합복지관 조서영이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활성화에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2부 행사 어울림 한마당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경품 이벤트가 진행됐다.

김성순 김제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사회복지의 범주가 확대되고 복잡 다양화되고 있어 개개인의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과 결집이 중요해졌다"며 "어려운 근무여건이지만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회복지사가 되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하였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축사를 통해 "김제의 사회복지 발전에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복지 전문가로서 하시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라며, 사회복지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한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김제시, 2025년도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준비반 수강생 모집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2025년도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준비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발인원은 A과정(직강 프로그램) 45명(기본반 20명, 심화반 25명), B과정(관리형독서실 프로그램) 25명, C과정(동명상강의 지원 프로그램) 20명으로 총 90명이다.

응시자격은 지난 6월 기준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시민의 배우자 및 자녀 또는 공고일 기준 김제에 10년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두고 거주한 적이 있었던 시민의 자녀(단, 접수일 기준 응시자 본인이 김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함)이어야 하며,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2025년 수강생 모집을 위해 6일 응시교부를 시작으로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원서접수를 진행하며, 2025년 1월 4일 선발시험이 치러진다.

2025년 1월 4일에 예정된 선발시험은 영어·한국사 9급 공무원시험 기준으로 출제하여 공개경쟁 필기시험으로 치러지며, 최종합격자는 선발시험 고득점순으로 결정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이순덕 의원
삼례읍 번영회로부터 감사패 수상받아

지역 발전 위한 정책 추진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과 이순덕 운영위원장이 10일 삼례읍행정복지센터에서 삼례읍 번영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유의식 의장과 이순덕 운영위원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히 삼례읍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삼례읍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삼례읍번영회는 "유의식 의장과 이순덕 운영위원장은 삼례읍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으며,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번 감사패를 수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순덕 운영위원장은 "이번 감사패는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삼례

읍 주민들과 함께 이룬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삼례읍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의식 의장은 "삼례읍번영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삼례읍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삼례읍을 비롯한 완주군 모든 읍면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은 물론 우리 완주군이 주민자치 1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선봉에 서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원주=염재복 기자



완주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제4회 주거복지대상'에서 10대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완주군, 주거복지대상서 '국토부장관상'

맞춤형 복지로 주민 주거여건 크게 높여

완주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제4회 주거복지대상'에서 10대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완주군은 지난 2022년 국토교통부 제2회 주거복지대상 '우수 지자체', 2024년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 제7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종합대상'에 이어 주거복지 부문 연속 수상을 이어가게 됐다.

주거복지대상은 지역별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 여건을 개선한 기초 지자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완주군은 주거복지조례를 제정하고,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공고히 했다.

또한,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취약계층 생활민원처리(기동반)를 운영해 주거복지 수준을 높였다.

이외에도 업무 담당자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 특화사업을 시행, 주거취약계층의 다양하고 촘촘한 주거 서비스를 지원해 온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주거취약계층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군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염재복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